

신년사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정해년(丁亥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도정운영에 있어 2007년을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며' 해로 만들겠습니다.

1980년대 GE의 최고경영자였던 잭 웰치는 평안한 현실에 과감한 메시지를 가하여 미래를 준비한 대표적 기업인입니다. 그는 철저한 평가로 세계 1위가 될 수 없는 사업을 정리하여, 350개 사업부를 12개로, 42만 명이었던 직원을 27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GE는 세계에서 가장 시장가치가 높은 기업, 미국 다우존스 주시지장에서 100년 동안 살아남은 유일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공공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존재가치가 상실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금년 예산편성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지속하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효율성이 낮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과감하게 재조정하였습니다. 그 대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은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엄격하게 평가·관리하고, 시·군이나 민간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이나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07년에 경기도가 버리고, 고쳐야 할 또 하나의 관행은 '한막이 행정'입니다.

현대 행정은 광역행정입니다. 행정구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벽을 쌓아 놓으면 그 틀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수도권은 매일 300여만 명이 오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금제도·환승체계 등을 달리 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도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오염원의 65%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흘러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는 수도권의 교통·수질·대기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시·도간의 협력분야를 주택공급·관광·복지 등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새로운 상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도민들께서 경기도에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출퇴근길이 시원하게 뚫린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전 지역을 1시간 내외에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망과 철도망을 확충하고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하남~하일 등 5개소의 광역도로와 방산~하중 등 2개소의 국도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고, 42개소의 지방도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도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는 서안산 IC 개통, 중동 IC 하부교차로 개설, 팔당 도로교 재개통 등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20개축 309km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 12월에 연 교통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교통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원선 복선전철이 조기에 개통되어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되었습니다. 경의선·중앙선 등 7개 광역전철도 하루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경기버스와 서울버스·수도권전철간 환승합인을 금년 내에 시행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화성~수색구간이 이어 금년에는 안양 중앙로 등 5개구간 36.1km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구축하여 버스의 운행속도를 높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민선4기 경기도지사로서 취

임하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의 이유로 수십년간 개발이 억제되어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도로·철도 등의 SOC를 확충하고, 반한 미군공여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명문 사립대학교를 유치하고 첨단산업 입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지역은 경제발전의 비전실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팔당호 수질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대신에, 불합리한 규제와 고쳐 경기 북동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위주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로는 구 도심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금년부터 낙후된 기성시가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뉴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도 도시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 개발의 파고 속에 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진농촌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의정부시 건설



의정부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정해년(丁亥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의정부시가 평온한 가운데 도약의 기쁨을 더욱 톡톡히 다질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에 늘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2006년도는 민선3기 시정에서 추진해왔던 각종 시책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와 희망의 시기인 민선4기의 실질적 시작을 준비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시 최초의 고속도로인 서울의곡순환 고속도로와 함께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되었으며, 도시의 동서를 잇는 경량전철건설사업도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최초로 4년제 대학인 광운대학교 캠퍼스 이전유치와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뉴타운 개발지구 결정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 해결과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이러한 성과들은 공직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인들의 노력과 함께 41만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관행과 가치를 과감히 뿌리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한 탈바꿈으로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007년 올 한해는 우리시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도약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쾌적한 삶의 터전 만들기 역점을 두고 우리시를 명실상부하게 살맛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시정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0만평에 달하는 미군공여지를 지역특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캠퍼스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동서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거리인 중앙로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쾌적한 도시환경과 역세권 상권 강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직동, 추동공원의 지속적 개발과

중앙천,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시를 아름다운 녹지공간,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민원의 대상이었던 용원동 의정부전력소와 송전탑이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전철 7·8호선 연장선 그 필요성에 불응하고 현재 시정으로는 실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사업에 박차를 가해 시 동부지역주민들의 속원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용역 방호벽 철거에 이어 시관문인 다락원앞 방호벽 철거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의정부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역점추진사업을 통해 올 한해가 우리시 도약의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출발점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을 하나로 힘을 모아 살맛나는 의정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의정부시를 만들어 갑시다. 크나 큰 꿈을 가슴에 품고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1세기 최첨단 IT기술과 조각과의 만남

의정부예술의전당 1월10일부터 2월15일까지

한국현대미술의 현주소를 21세기 최첨단 IT기술의 설치미술과 조각 작품의 만남을 통해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시회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현대미술작품 중 조각과 뉴미디어 분야의 80점을 엄선한 전시회가 바로 그것.

이번 전시는 교과서나 사진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홀로그램, 레이저빔, DVD플레이어, 빔프로젝트, LCD모니터 등 한국의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설치미술작품과 조각 작품의 절묘한 만남을 통해 21세기 정보화기술이 현대미술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너무나 친숙해져있는 각종 IT장비들을 통해 현대미술작품을 생동감 있고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의 최첨단 흐름을 눈과 귀로 보



일렉 울저진 산수 유림가·영와 2006디지탈 시비크로, 컴퓨터 합성 110x165.3(90호)

고 듣고 느끼는 겨울방학 최고의 체험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심영철 교수의 "일렉트로닉 가든", 공성훈 교수의 "추락", 이해림 작가의 "Lash", 김문규 작가의 "에너지", 임창민 작

경기관광공사 임병수 사장 任命

'관광공기업 先導의 경영모델 제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월4일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임병수(林炳秀·55·사진) 전 문화관광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임 사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으며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문화산업국장, 주LA총영사관 영사 겸 LA문화원장, 국립도서관광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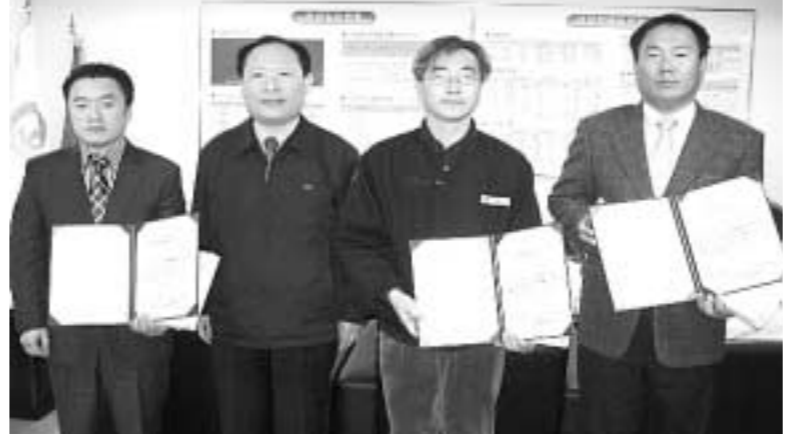
임 사장은 문화관광부 시절 관광기업법제도시건설 추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경북북부 유교문화원 개발 사업을 총괄수

행하고 2004 WTO세계총회와 2006 세계도시관광정보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2005 ASEAN+3 관광교류협상을 주도하는 등 관광분야 최고 권위자로서의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임병수 사장은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수익 기반 창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 및 수익사업 발굴, 대안위 관광객 유치촉진전략의 병행추진이 필요하다"며 "한류 우드 조성,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등 주요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관광공기업으로서의 선도적 경영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무재해 유공자 표창장 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주) 신세계 이마트 양주점 등 3개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1월5일 지도원장실에서 양주시 회정동에 소재한 (주)신세계 이마트 양주점(지점장 전진홍) 등 3개사에 대해 무재해 달성 인증서 및 무재해 운동 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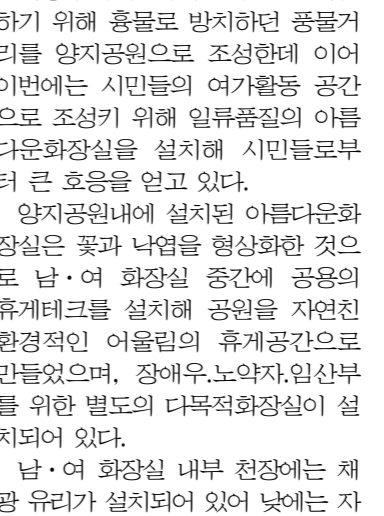
무재해 2배를 달성한 (주)신세계 이마트 양주점은 2004년7월20일부터 2006년11월11일까지 지점장 및 전 직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840일 동안 무재해를 기록했다.

이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여 근로의욕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및 경쟁력 활성화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증서 수여식 추사에서 무재해를 달성한 (주)신세계 이마트, 남양건설(주) 고양일산 3공구, 삼부토건(주) 한강하류권 제4공구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무재해 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정병갑 기자 ipk61@paran.com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앞장

의정부시 양지공원내 다목적화장실 설치



의정부시가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흉물로 방치하던 풍물거리를 양지공원으로 조성한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류품질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지공원에 설치된 아름다운 화장실은 꽃과 나뭇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남·여 화장실 중간에 공용의 휴게테코를 설치해 공원을 자연친화적인 여울림의 휴게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다목적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남·여 화장실 내부 천장에는 채광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낮에는 자연 채광으로 편안한 실내분위기가 연출되며, 여자화장실에는 개성 있는 거울과 포인트 타일로 장식된 파우더 룸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남·여 화장실 내부에도 남성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내에는 잔잔한 음악과 LCD화면으로 아름다운 꽃의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아와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부모를 위해 남·여 화장실 모두에 유아용 대·소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를 설

치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들의 위생권의 시정인 공공화장실을 깨끗이 하도록도 친화적이며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양지공원에 공공화장실 신축 외에도 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 남·북측 공공화장실도 리모델링하였고, 또한 백석천근린공원에 원목형 수세식화장실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신년인사회 성황리에 마쳐

'살고 싶은 의정부시 도약의 기회' 마련



2007년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아 지역 발전을 기원하고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한 신년 인사회가 1월2일 오전11시 의정부벤션센터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 도시의원,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기념사와 신년사, 간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민선3기 각종 시책사업을 마무리하고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와 희망의 시기인 민선4기의 실질적 시작을 준비한 한 해였다고 했다.

김 시장은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해로 시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살맛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올해는 110만평의 미군공여지 종합계획수립과 광운대 캠퍼스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 재래시장 활성화, 직동 및 추동공원 개발, 중앙천 및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의정부전역,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건설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청소년회관, 겨울방학 문화교실 운영

1월 8일부터 26일까지 12개 과목 280명 참가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7 동계 문화교실을 1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실시하고 있다.

작년 12월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2개 과목 280명을 선착순 접수를 마쳤으며, 1인 1과목만 신청하도록 했다.

회관 관계자는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질을 개발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와 다양한 강좌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력 발달 및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